

Vol.227

2021 03

#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1)

박해와 선교현장

이란 (Iran)

현장스토리

미얀마 성도들의 기도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 코로나19 현실에서 풀어갈 선교

서창원 목사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장, 한국오픈도어 이사)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중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적게는 2천만명 많게는 8천만명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 때 이후로 전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우리가 처음 겪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상에 확진자들만 현재 1억명이 넘었고 그로 인해 죽은 자들은 2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언제나 종식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엄청나게 뒤바꾸어놓았다.

전쟁 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중단되기도 하고 한반도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추석과 설 명절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선교사들도 선교지를 떠나야했고 돌아오지도 못한 자들도 있지만 잠시 있다가 가리라고 생각한 자들도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교회들도 생존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선교도 지금까지 세워놓은 것들이 다 무너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탈북자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원’ 마저도 원생들이 이제 겨우 3명 남아있다는 소식을 접할 정도로 지금까지 해 오던 일상적인 일들이 옛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선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교 역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재고하고 선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을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활동이 이제는 예배 중심의 모임으로 정착이 되어간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특정한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를 프로그램이 좋아서 혹은 시설이 좋아서 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멈춰졌다. 이제 오직 말씀선포와 기도 및 올바른 찬송 부르기(시편) 그리고 자녀 교육 철저히 하기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들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다. 형식으로 남아 있어도 안 된다. 살아 있는 예전이여야 한다. 목사는 굶주린 영혼들의 해갈에 전념하고 천국 가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촉구해야 한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한 감화 감동이 넘쳐나게 해야 한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service)라고도 한다. 목사는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준비에 피땀 흘려야 하고 준비된 설교 전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위한 우리의 수고도 한국에 들어온 우리 동포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에 들어왔지만 일단 자유민주 국가의 땅 접촉을 한 후로는 교회를 등진 자들이 무지기가 되고 있다. 탈북한 자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보다 지금 상황에서 이미 들어온 그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자녀

들을 위한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이 되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 교회를 세울 사람들은 남한 출신의 사람들보다 탈북자들이 훨씬 많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선교와 교육에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선교도 지금은 단지 현지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추방된 자들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방안을 찾아서 핍박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려 2백만 명이 산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는 효율적인 선교방식을 택해야 한다. 외국인학교에 선교사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고 센터를 세운다고 건축비를 모금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 있는 기존 교회당과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선교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재정으로 특정 지역 출신들을 돌보는 전담 교역자들을 세워서 섬기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단지 교회에 잘 출석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밀착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는 헌신된 일꾼들을 길러야 한다. 그것은 여전히 순전한 복음 선포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 열정을 쏟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한 아름 안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을 잔뜩 품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1)
- 06 박해와 선교현장 - 이란
- 14 WWL2021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16 현장스토리 - 미얀마 성도들의 기도
- 18 사역보고 -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계속되는 오픈도어 사역
- 22 희망의 선물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연중캠페인

2021년 03월호 | 통권 227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준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

- 마리아 -

나는 탈북자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가 3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나도 그 숫자에 포함된 한 명의 탈북자다. 태어날 때 본인이 선택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은 없다. 북한 사람 대다수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채 태어나자 마자 살아있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억압과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원통하다.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신과 같이 떠받들어 지고자 하는 몇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수천만이 고통받고 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피 흘리셔야 할 만큼 이 땅의 악은 시커멓고 잔혹하여 사람들을 옴아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은혜를 전달하셨다.

얼마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애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부모님 생각부터 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비록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많은 역경이 있었다. 비록 이름 없는 탈북자 1인에 불과하지만 부족한 나에게까지 닿았던 그 은혜를 알리고 싶었다. 그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강을 건너고 위험을 감수하며 찾았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이란 국경 근처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나는 2남 1녀 중 막내였다. 아버지는 6.25 때 다리 한쪽을 잃은 영예 군인이었다. 여기 말로 하면 상이 용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있어야 할 다리는 의족이 대신했다. 아버지는 영예군인 공장에 다니셨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 다니셨다. 원래 두 분은 서로 알던 사이가 아니셨다고 한다. 아버지께서 전쟁 이후 황해도에서 일하시다가 영예 군인교육을 받기 위해 북쪽 지방으로 올라오셨고, 거기서 어머니를

소개받으셨다고 한다. 비록 북한에서 영예군인 대우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장애가 있는 사람을 좋은 결혼 상대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지 어머니는 아버지와 백년 가약을 맺으셨다.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머니가 장애를 무릅쓰고 좋아하실 만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품이 좋은 분이였다. 참자 상한 분이였다. 아버지께서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전쟁 이야기나 왜정 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러셨을까, 상대적으로 어머니는 상당히 엄한 분이셨다. 그 집에 막내딸로 태어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공주같이 귀여움과 사랑을 받고 자랐다.

우리집은 한 동 네 세대 집이었다. 집 한 채에 4가구가 쫓아져 있는 집이다. 보통 말하는 하모니카 집이 10집이 상씩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좋은 집은 아니었다. 자그마한 단칸방에 부엌도 작고, 집에 잘 때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다. 남한에 와서 생각해보니 남한의 60년대 풍경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경제사정이 나쁘지 않았다. 국가에서 영예 군인은 대우해주기도 했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었다. 그 증세로 인해 내 몸에서는 항상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아직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나이였다 보니 제때 옷을 갈아입고 위생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이런 걸로 드러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다. 내 주위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냄새 난다고 내 주위를 피하곤 했다. 만약 그

〈북한의 주택 (NK뉴스)〉



때 내가 아이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망했다면 내 어린 시절은 외롭고 어두움 뿐이었을 것이고 자칫 내 인생 전체가 그늘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공부도 잘 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커서야 내가 몸관리가 되니까 좀 괜찮은데 어릴 적 때는 자꾸 내 몸이 신경 쓰이고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나를 구김 없이 길러주셨고, 원재 성격이 활발하고 개구쟁이였던 나는 왕따도 당하지 않고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그렇게 아랑곳 않고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아이들도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나는 곧 동네에서 제일 활발한 아이가 되었다. 동네에서 제일 크게 소리 지르고 신나게 노는 여자아이가 바로 나였다. 오죽하면 이웃들이 동네가 소란스러우니 마리아(가명)에게는 밥을 좀 적게 주라 할 정도였다. 엄마가 걱정하시면서 병이 있는데 밖으로 적당히 다니라고 하실 정도로 쾌활했다.

한편 큰 어려움 없이 지내던 우리 집에 예기치 않은 슬픔이 찾아왔다. 큰 오빠가 군 복무 중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초등학교생이었던 나는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다.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나이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슬펐다. 가슴에 아들을 묻으신 부모님에게서도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다.

내가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집안 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공부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청년돌격대에 입대했다. 청년돌격대는 청맹 산하 기관으로서 대학 가지 않고 사회 진출할 사람을 병역 대신 입대시켜 각종 공사에 투입하는 건설단이다. 돌격대는 삽을 들고 건설 현장을 다니지만, 군복처럼 제복을 입고 군대식으로 편제되어 활동했다. 나도 신입 훈련을 받고 중대, 소대 배치를 받았다.

우리 여단이 공사 배치 받은 곳은 평양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도 태어나서 평양한 번 못 가본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평양을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하지만 집안에서 가지말라고 나를 뜯어 말리셨다. 외동딸인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으셨고 몸의 약점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었다. 거기에 사회 풍조상 여자가 밖으로 돌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가 더 심했다. 그렇지만 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청년돌격대로 평양을 가게 되었다.



〈2016년 5월 북한 속도전청년돌격대 창립 40돌을 맞아 열린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의 결의대회〉

역시나 어른들 말처럼 집 떠나면 고생이다. 돌격대 일은 정말 힘들었다. 북한은 자동 없이 수동이라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담은 25킬로그램 포대 2개를 어깨에 지고 다니고 시멘트와 몰타르를 만지고 삼질하면서 고생했다. 일 하는 데는 여자라고 적게 시키거나 하는 법이 없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그래도 젊어서 한때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보내고자 했다. 중대 선동원이 보급하는 새로 나온 노래가 있으면 열심히 흥얼거렸다. 힘들었지만 거리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나름 보람이 있었다.

돌격대 생활의 낙은 누가 뭐래도 평양 구경이었다.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기에 평일에는 외출이 금지되었지만 주말에는 평양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다. 내 눈에 평양은 휘둥그레질 정도로 멋있었다. 처음으로 야경이라는 것을 보았다. 가로등에 불이 다 들어오고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있는 평양은 북한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다. 나름 큰 지방도시도 다녀보고 했지만 이런 곳은 없었다. 평양은 정말 최고였다.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평양의 화려함 가운데 울려 퍼졌던 여러 구호와 선전이 생각난다. 내가 평양에 있을 당시 사람들 사이에 수령 숭배가 대단했다. 나부터가 내 증조 할아버지는 몰라도 김일성 수령의 가계는 다 외우고 다녔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가 경제도 나쁘지 않았던 덕일까, 그 당시 공화국 사람 중에 소위 신실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 많았다. 평양 거리를 걸으며 멋진 건축물들을 볼 때 웬지 모를 충성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았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의 평양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하루는 배고파서 채 익지 않은 과일을 하나 따 먹었는데 그것이 그만 탈이 나서 건강을 크게 해친 것이다. 그게 큰 병이 되어 제대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다.



# 이란

## Iran

인구 : 83,587,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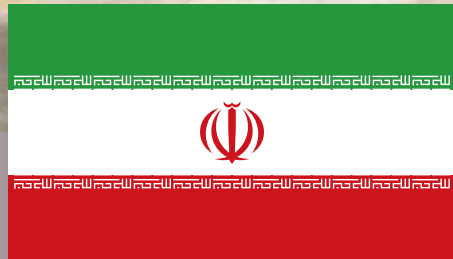
주요 종교 : 이슬람(98.3%), 기독교(1%), 바하이교(0.3%)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800,000명(오픈도어 추정)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 8위, WWL2020- 9위

기독교박해 지수 : 86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 정권과 이슬람교의 억압



### 이란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1979년 이란혁명으로 샤 국왕이 축출되고 이란은 이슬람공화국이 되었다. 시아파 이슬람지도자들이 지배하면서 서구의 영향을 금지했고 기독교를 서구가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잠식하려는 시도로 간주했다. 이란의 이슬람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1979년혁명 가치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기독교는 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모든 법은 샤리아법과 일치해야 한다. 시아파 이슬람학자들과 성직자들로 구성된 헌법 수호위원회가 모든 입법과 고위공직자 지명을 관할한다. 이란인(페르시아인)은 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정해져 기독교로 개종하면 배교자에 해당한다. 따라

서 이란어(페르시아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독교활동은 불법이다. 이란 정보기관(MOIS)과 혁명수비대(IRCG)에 의해 크리스천 활동은, 인터넷과 위성TV 시청을 포함하여, 모두 감시와 단속을 받는다. 무슬림들이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해 검색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이란은 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최고의 감시시스템들을 구입했다.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는 무슬림, 조로아스터교인, 유대교인, 기독교인 4가지이다. 이 4가지 중 한가지로 정체성을 표기해야 한다. 전통적인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인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지만, 이란의 종교적 관용을 선전하는데 이용되고, 이들

도 2류 시민 취급을 받으며 무슬림에서 개종하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크리스천들을 체포해서 높은 보석금을 받으려는 조직적 부패 또한 박해요인이다. 또한 이란에는, 특히 시골에는, 명예와 수치 문화가 있어 기독교로 개종한 구성원을 가족과 공동체가 박해한다.

### 이란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크리스천이,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이 신앙을 공개적으로(블로그나 소셜미디어 포함)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터넷은 모니터 되고 체포의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기독교 메시지는, 특히 이란어로 된 경우,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온라인 기독교자료에 접속하는 것,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독교자료를 많이 소유하는 것은 이란의 무슬림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험하다. MBB성도들의 모임들은 감시를 받고 수시로 급습을 당한다.

• **가정 영역** : 크리스천은 무슬림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등록되어 이슬람 기반의 학교에 다녀야 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크리스천 자녀들도 초등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받아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부모가 기소될 수 있고 아이들도 위협을 당한다. 코란 교육과 아랍어는 필수이다. 대학입학원서에 종교를 표기해야 한다. 이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 기독교인으로 표기하면 입학이 거부된다. 법적으로 비무슬림은 무슬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비무슬림의 상속자 중 단 한명이라도 무슬림이 있으면 그가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들은 감시를 받는다, 특히 가정교회를 하거나 전도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으면 그렇다. 그런 경우 수시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고 위협을 당한다. 이란 크리스천이 해외에서 하는 활동들도 해외에 있는 이란 정보원들에 의해 이란 정부로 보고된다. 모든 여성은 머리를 가리고 히잡을 써야 한다. 정부가 경제의 60%이상을 통제하고 이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치적관계와 정실관계에 의존한다. 아르메니아인들, 아시리아인들과 같은 전통적 크리스천

들은 사업을 하려면 차별에 직면하는 한편 다른 크리스천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

• **국가 영역** : 정부의 고위직은 시아파 무슬림들에게만 보장된다. 크리스천들은 공직에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오직 국회의원 3석만이 아르메니아/아시리아 크리스천들에게 배당되어 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립 언론매체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정부 관료들과 이맘(이슬람지도자)들은 모두 크리스천들을 비판한다(전형적으로 시오니즘과 가정교회들을 언급한다) 정부 공무원들은 크리스천들에 대해, 체포와 심문 과정에서, 자주 폭력을 쓴다. 성적 괴롭힘은, 이란 형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흔하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가족구성원에 해를 입혀도 처벌되지 않는다.

• **교회영역** : 대부분의 교회예배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참석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크리스천들은 고유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단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을 환영해서는 안된다. 아르메니아와 아시리아 크리스천들은 약간의 정부 보조를 받는 학교들을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의 수석교사들은 보통 무슬림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이란어를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을 이란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그 조치로 교회들을 폐쇄하고 교회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공식적으로, 이란에서 이란어(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 WWL2021 이란 박해보고

(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0명
교회와 관련건물이 공격, 파괴, 몰수당한 건 수	17건
신앙 때문에 구금된 크리스천 수	110명
신앙 때문에 감옥, 노동캠프, 정신병원 등에 보내진 크리스천 수	44명
신앙 때문에 구타와 위협 등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 수	240명
강간, 성폭력을 당한 여성 크리스천 수	21명
비기독교인에게 강제결혼 당한 여성 크리스천 수	10명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75건
크리스천 사업장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28건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60명
신앙 때문에 이란을 떠나야 한 크리스천 수	1000명



## WWL2021 기간 박해 사례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부부인, 삼과 아내 마리얌은 3개월된 여아를 딸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리디아'가 두 돌이 되기 한달 전, 작년 7월에, 이란 법정은 가정교회 교인 부부가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입양한 아기 리디아를 이 부부에게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아기를 떼어놓으라는 판결의 유일한 이유는 삼과 마리얌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 가정교회 교인 타헤르 형제 가족은 집에서 비밀경찰의 급습을 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가정교회 비밀신자들의 이름을 밝히려는 심문을 당했습니다. 석방후에도 이웃의 차별과 정부의 감시가 극심해져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 이란을 떠나야했습니다. 떠나면서 심정을 묻는 질문에 타헤르의 아내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릴 가치가 있는 분이시지요. 제 생각에, 우리는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 이란 개신교회

이란인들(파르티아인, 메데인, 엘람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최초의 성도들 중에 속한다. 이란 본토에 가까운 카르그 섬에는 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크리스천 무덤 60기가 발견되었다. 이란 교회는 페르시아 전체와 인도 교회들의 주교인 '페르시아의 요한' 주교가 325년 니케아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로 보아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642년 아랍의 페르시아 침략으로 이슬람이 뿌리내리고 크리스천들은 '종속화'되고 공예배는 심한 제약을 받았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 후 12세기~14세기에 동방교회는 꺾멸되고 일부가 로마와 합의하여 "칼데아 카톨릭"이 되었다. 16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란의 역사적인 기독교는 아르메니안 크리스천들이다. 1979년 이란혁명 후에도 이들은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개신교 선교는 19세기에 시작되어 1812년 최초로 페르시아어로 신약성경번역을 하였다. 그러나 무슬림 선교가 워낙 어려웠다. 1936년에 개종한 크리스천 수가 가장 많던 성공회 교회도 그 수가 350명에 불과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19세기 20세기에 기독교의 영향력은, 1979년 이란혁명이 전까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병원, 시골 진료소를 통해 커졌다.

### 이란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250,400명(31.3%)
카톨릭	8,000명 (1.0%)
개신교 기성교단	40,800명 (5.1%)
독립교단	474,400명(59.3%)
무소속	26,400명 (3.3%)
이중소속	0명 (0.0%)
합계	800,000명(100%)

### 이란 가정교회 리더 싱글맘 '다리아' 이야기 "매주 새신자가 더해져요!"

저는 여기 이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



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희는 매주 새로운 신자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비록 많은 어려움과 압박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새로운 힘이 나요. 십대 청소년들, 청년들, 노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걸 매일 보기 때문이지요. 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면 놀라워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 봐야 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러 갔어요. 그분은 한 성도가 몸이 안 좋아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가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아직 아니었어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오늘은 당신 차례다" 그녀는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더니, 자기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준비시키세요!

"제가 일어서는데,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다시 얘기를 시작했죠. 제가 얘기를 마치자, 그 손님은 자기가 선지자 모하마드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 때, 방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벌써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러한 간증들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쓸 수도 없어요 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원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여기 사람들의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려요. 한 예로, 택시나 버스나 다른 공공 장소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더 들려 달라고 애원해요. 안타깝게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거죠. 저는 우리에게 사역자가 더 많다면 우리 사회 대부분이 믿을 거라고 확신해요. 주님이 하신 위대

하신 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 삶 속 모든 순간에 함께 하세요. \*보안상 이름은 가명입니다.

## 이란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최근 몇 년간 이란어(페르시아어 Farsi)로 예배를 드리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란의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앙생활과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투옥중인 성도들,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MBB) 투옥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이슬람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절연까지 당하는 MBB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가정교회의 교제 기회마저 빼앗긴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주 예수님! 우리 이란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때문에 갇혀있는 이들을 주님의 임재로 둘러싸 주시고 그들이 계속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정부와 당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란에 더 많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소서, 신앙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 하여 주옵소서!"**



# 이란 투옥자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결수 또는 가석방 상태인 사람은 제외한 현재 복역 중인 사람들이며, 보안상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사람 또한 제외한 명단입니다. ※출처: Article 18 (articleeighteen.com)



(사진: 5년형을 받은 9명의 이란 MBB 크리스천들: Abdolreza Ali Haghnejad, Shahrooz Eslamdoust, Behnam Akhlaghi, Babak Hosseinzadeh, Mehdi Khatibi, Khalil Dehghanpour, Hossein Kadivar, Kamal Naamanian and Mohammed Vafada)

## 1. 바bak 호세인 Babak Hosseinzadeh 2019년 2월 23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에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5년형 선고받고 테헤란 에 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각각 다른 곳에서 체포된 같은 교회 성도 9명 모두 5년형 선고받음

## 2. 메h디 카티비 Mehdi Khatibi 2019년 2월 23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에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5년형 선고받고 테헤란 에 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

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 3. 베남 아클라기 Behnam Akhlaghi 2019년 2월 23일 체포

이란혁명수비대 사무실로 소환되어 체포됨.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7월에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5년형 선고 받고 테헤란 에 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 4. 카말 나아마니안 Kamal Naamanian 2019년 2월 15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 고,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보석금을 비롯하여 여러가 지 법적투쟁을 하였으나 2020년 2월 항소가 기각됨. 5

년형을 받고 2020년 6월1일부터 테헤란 에 빈 감옥에 다시 수감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 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약 \$13,000.

## 5. 모하마드 바파다르 Mohammad Vafadar 2019년 2월 15일 체포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포. 3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 고, 보석금이 10배로 오름. 2020년 2월 항소가 기각됨. 5년형을 받고 2020년 6월1일부터 테헤란 에 빈 감옥에 다시 수감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 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약 \$13,000.

## 6. 샤루즈 에슬람두스트 Shahrooz Eslamdoust 2019년 2월 15일 체포

위의 카말과 모하마드와 같이 “가정교회” 모임에서 체 포. 3월에 다른 4명의 크리스천들이 보석으로 가석방 될 때에도 샤루즈는 구금되어 있었음. 2020년 2월25일 항소가 기각됨. 5년형을 받고 테헤란 에 빈 감옥에 수감 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 교 선전”. 보석금 \$130,000

## 7. 아브돌레자 알리 하그네자드 Abdolreza Ali Haghnejad 2019년 2월 10일 체포

자기 집에서 체포됨. “가정교회”에 대한 단속이 있던 같은 시기에 체포. 3월에도 가석방되지 못하고 계속 구금되어 있었음. 2019년 10월13일 9명의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5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25일 항소 기각됨. 테 헤란 에 빈 감옥에 수감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 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0

## 8. 호세인 카디바르 Hossein Kadivar 2019년 1월 29일 체포

투옥된 목사님(유세프 나다르카니) 대신 “가정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중에 체포됨. 예배 중에 집의 벽을 타 고 침입한 정보국 요원들은 모든 참석자들의 신분증과 휴대폰까지 압수. 3월에 잠시 보석으로 풀려남. 2019 년 10월13일 9명의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5년형 을 선고받고 2020년 2월25일 항소 기각됨. 테헤란 에 빈 감옥에 수감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13,000

## 9. 칼릴 데간푸르 Khalil Dehghanpour 2019년 1월 29일 체포

칼릴 역시 “가정교회” 모임 리더로 호세인과 함께 체포 됨. 3월에 잠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19년 10월13일 9명의 가정교회 형제자매들과 같이 5년형을 선고받음. 2020년 2월25일 항소 기각. 2020년 6월1일부터 테헤 란 에 빈 감옥에 수감중. 죄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 동”, “시온주의 기독교 선전”. 보석금 약 \$13,000

## 10. 메h디 아크바리 Mehdi Akbari 2019년 1월 28일 체포

정보기관원들에 의한 일련의 개종한 크리스천 가정집 급습 중 테헤란의 자기 집에서 체포. 테헤란 에 빈 감옥 독방에 수감되어 30일간 심문. 2019년 3월에 보석으로 가석방. 2020년 6월16일 테헤란 혁명법정에서 “국가안 보에 반하는 활동”, “불법적인 기독교전도 단체 결성” 의 죄목으로 재판. 4개월 후(2020년 10월 24일) 10년 형 선고받음. 재판정은 변론은 듣지 않고 정보기관의 보고만 인용하고 보석금을 올림. 테헤란 에 빈 감옥 수 감중, 보석금 약\$220,000

## 11. 메h디 루파바르 Mehdi Roohparva 2019년 체포(일자불명)

개종한 크리스천인 메h디는 2020년 10월24일 테헤란 의 혁명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5년형을 선고받음. 죄목 은 “가정교회를 만들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 현재 테헤란 감옥에 수감 중. \*그 외의 세부사항들 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12. 마지드레자 소우잔치 Majidreza Souzanchi 2017년 11월 17일 체포

2018년 4월25일에 5년형을 선고받고 2019년 1월에 2 년으로 형량이 줄었으나 1년 후에 다시 허위 ‘절도죄’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테헤란의 더 큰 교도소로 이 감됨. 죄목은 “전도단체 가입을 통한 반국가선전”, “전 도활동”과 “절도죄” 형량 합계 4년.

## 13. 나세르 나바드 골타페 Nasser Navard Gol-Tapeh 2016년 6월 24일 체포

3명의 아제르바이잔크리스천과 함께 체포. 10월에 4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017년 6월22일 각각 10년 형을 선고받음. 2017년 12월 항소심에서 형 확정. 죄목은 “스웨덴의 생명의 말씀 교회와 엘람의 시온 기독교와의 조직적 관계를 통해 정권을 전복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 2018년 1월 20일부터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중.

#### 14. 유세프 나다르카니 Yousef Nadarkhani 2016년 5월 13일 체포

가정교회인 “이란 교회 Church of Iran”의 담임목사로 사모와 다른 3명의 교인과 함께 체포. 다음날 풀려났으나 2017년 7월 6일 10년 형을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 2020년 6월 재항소를 통해 6년으로 감형. 그러나 석방 후에도 2년간의 유배형이 남아 있음.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중. 보석금 약 \$33,000

#### 15. 자만(사헤브) 파다이 Zaman (Saheb) Fadaie 2016년 5월 13일 체포

이란 가정교회에서 다른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 2주 후에 보석석방. 2016년 9월 10일에 다른 2명과 함께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 태형 선고받음. 죄목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것(이슬람 음주금지법에 저촉) 2017년 7월6일에 다시 혁명법정에서 10년형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 2018년 9월, “반정부 선전”죄로 18개월 형 추가. 2020년 6월 재항소심에서 6년으로 감형. 2020년 11월 15일 80대 태형 집행. 석방후에도 2년 유배형.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중. 보석금 \$40,000.

#### 16. 모하마드-알리(아세르) 모사예브자데 Moham-mad-Ali (Yasser) Mossayebzadeh 2016년 5월 13일 체포

이란 가정교회에서 다른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 2주 후에 보석석방. 2016년 9월 10일에 다른 2명과 함께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 태형 선고받음. 죄목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것(이슬람 음주금지법에 저촉) 2017년 7월 6일에 다시 혁명법정에서 10년형 선고받음. 죄

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 형 확정 후 감형 소식 없음. 테헤란 에빈 감옥에 수감중. 보석금 약 \$40,000.

#### 17. 모하메드-레자(유한) 오미디 Mohammad-Reza (Youhan) Omidi 2016년 5월 13일 체포



이란 가정교회에서 다른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체포 2주 후에 보석석방. 2016년 9월 10일에 다른 2명과 함께 시민혁명법정에서 80대 태형 선고받음. 죄목은 성찬식 포도주를 마신 것(이슬람 음주금지법에 저촉) 2017년 7월 6일에 다시 혁명법정에서 10년형 선고받음. 죄목은 “가정교회들을 조직하고 ‘시온주의 기독교’를 선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것” 석방 후에도 2년 유배형 추가. 2020년 6월, 재항소심에서 2년형으로 감형되어 8월 18일 석방되었으나, 한달 후부터 2년 유배형 시작. 80대 태형 집행. 유배생활 중. 보석금 약 \$40,000,

#### 18. 에브라힘 피루지 Ebrahim Firouzi 2013년 8월 21일 체포. 2021년 2월 8일 불법 재수감!

체포된 후 처음에는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4월 20일 재심에서 5년형 추가. 죄목은 “반국가선전”, “국가안보를 방해하는 조직들과 관계, 협력, 가입한 죄”. 항소에서 패하고 복역. 2020년 10월 26일에 석방되었으나 외판 시골에서 2년 유배형 시작. 어머니 사망 관련 가족 방문을 한 것이 “승인받지 않은” 유배지 이탈이 되어 11개월 유배기간 추가. 유배생활 중 \*2020년 9월에 “신성 목독”, “기독교 선전을 통한 반국가선전”으로 새로운 고소를 당했으나 기각됨. 2021년 2월 8일 불법적으로 재수감되어 현재 단식 중.

## 이란 MBB 크리스천 투옥자 “에브라힘” 형제

무슬림에서 개종한 에브라힘 피루지(34세) 형제는 신앙 때문에 7년 이상의 투옥생활을 하고 석방 후 유배생활을 하던 중, 올해 2021년2월8일, 다시 새로운 고발로 소환되어 이란 남동부의 차바하르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새로운 고발 죄목은 "적대적 단체들 편에서 이슬람공화국에 반하는 선전활동"입니다. 이 새로운 고발은, 그가 자신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하는 6개의 동영상들이 스위스 기반의 한 활동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된 후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동영상이 공유된 다음 날인 2월7일, 에브라힘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배된 곳에서 차로 1시간반 정도 떨어진 사르바즈 검찰에 5일내로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브라힘은 다음날 2월8일 검찰로 갔고, 그곳에서 곧바로, 250km나 떨어진 샤바하르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5,000만



임에도 불구하고, 압수했습니다. 그의 성경들도 압수하려고 해서, 에브라힘은 '나는 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된 크리스천이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라고 항의하며 성경압수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그는 '진실이 알려지도록 이 영상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헌법은 한 개인의 신앙을 "심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이 자신에 대한 압수행위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정보당국만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힘은 또, 이번 기소로 다시 3년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당국이 사법정의를 추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란교회는 결코 정

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말씀에 따라 우리는 법을 지키며 평온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게 합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육체적인 해를 입힐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의 석방보다는, 제가 내일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02

### 아프가니스탄



**인구**  
3,810만 명 / 기독교인 극소수  
**지도자**  
아쉬라프 가니 대통령  
**박해지수** (1점 증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크리스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수치이며, 무슬림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것이 드러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 나라를 떠나야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둘중의 하나이다. 크리스천이 된 것이 가족에게 발각되면 그 가족, 친척 또는 부족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와 의절하고 심지어 살해까지도 한다. 무슬림을 떠나 크리스천이 되면 정신이 상으로 간주되어 정신병원에 격리되기도 한다.

오픈도어는 아프가니스탄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후원을 일으킵니다.

####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감시자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아프간의 비밀 신자 크리스천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 고립된 속에서도, 아프간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도록.
-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 03

### 소말리아



**인구**  
1,610만 명 / 기독교인 극소수  
**지도자**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  
**박해지수** (변동 없음)



소말리아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슬람은 소말리아인들의 정체성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만일 소말리아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혐의가 있으면 엄청난 위협에 빠진다. 가족과, 친척과 공동체 전체가 괴롭히고 위협하며 죽이기까지 한다. 크리스천들은 또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인 '알샤바브'로부터의 위협 가운데 있다. 이들은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을 '높은 표적'으로 삼는다. 크리스천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도 많다.

오픈도어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퍼져있는 소말리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지원합니다. 문서사역과 공동체 개발, 라디오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신앙때문에 살해당한 순교자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도록.
- 소말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강한 교회가 자라나도록.
-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 04

### 리비아



**인구**  
670만 명 / 기독교인 34,500명  
**지도자**  
파예즈 세라지 총리  
**박해지수** (변동 없음)



리비아에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다. 공개적인 교회생활이 불가능하다.

34,500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이주근로자이고 약 150명 정도만이 리비아인이다. 무슬림 출신의 리비아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지역공동체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심한 폭력적인 압력을 받는다. 또한 납치와 살해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범죄조직들에 의한 성폭행의 위험도 있다.

오픈도어는 북아프리카의 현지 파트너들과 교회들과 함께, 훈련과 문서사역, 사회경제개발과 옹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엄청난 압박하에 있는 리비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알도록.
- 새신자들과 고립된 신자들이 교제하고 배울 수 있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도록.
- 리비아에 평화와 안정이 오도록. 대리전이 된 오랜 내전이 종식되도록.

## 05

### 파키스탄



**인구**  
2억830만 명 / 기독교인 410만 명  
**지도자**  
임란 칸 총리  
**박해지수** (변동 없음)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2류 시민으로 간주된다. 비천한 직업들이 주어지고 노예(채무)노동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악명높은 신성모독법이 크리스천들을 표적으로 이용되어진다. 이슬람 극단주의단체들은 이 법을 맹렬히 옹호하고 위반자들에 대해 직접 공격과 살해를 자행한다. 크리스천 소녀들은 납치와 강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강제결혼, 강제개종을 당한다.

오픈도어는 파키스탄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후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이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 파키스탄 교회들이 보호되도록. 특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기간에.
- 납치를 당해 강제결혼과 강제개종을 강요받는 크리스천 소녀들을 위해.



# 미얀마 성도들의 기도

미얀마 쿠데타 사태, 크리스천 부족들(친, 카친, 샨, 라킨, 카렌)의 우려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로, 미얀마 교회와 성도들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며 전세계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불교민족주의를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크리스천들이 대다수인 부족들은, 군부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특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인 데이지는, 2월16일, “지난 토요일(2월13일), 군부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폐지하는 새로운 법을 발표하고 항의시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경찰에 의한 심각한 기본적 인권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 새 법의 기본권 침해

미얀마 군부가 발표한 새 법은 군부가 시민들을 1) 영장 없이 체포, 2) 임의 가택 수색, 3) 추적/급습, 4) 회사로부터 개인정보 입수, 5) 24시간 이상 구금. 등을 허용하며, 이러한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자는 20년 감옥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면된 23,000명 죄수들, 파괴행위

오픈도어 현지파트너 데이지는 미얀마 군부가 내린 23,000명 죄수들의 사면 결정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군부는 이들이 주민들을 위협하도록 의도한 것 같습니다. 데이지는 말합니다. “풀려난 죄수

들은 밤중에 여러 거주지의 아파트 물탱크에 유독물질을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그날밤 ‘파이어 링’들을 던져서 양곤의 따키타 지역 대부분의 거리에 불을 놓았습니다. 또한 한 주거구역(NgaMoeYeik)의 식수 파이프에도 유독물질을 넣었습니다...사람들은 군부가 석방한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에 장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또 계속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매우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요.” \*사면된 이들 23,000명의 죄수들 가운데는 극우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일반 언론들의 보도도 있습니다.

## 수도 양곤의 현지 분위기

오픈도어 파트너 민 나잉은 지난 주말(13일전후)의 경험을 전했습니다: “경찰과 군인을 가득 태운 트럭들이 양곤의 우리집을 지나갔어요. 그날 낮에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과,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다 체포하러 온 겁니다. 그때 한 집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건물과 아파트 주민들도 따라



서 같은 소리를 냈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냄비와 팬들을 두드리면서 경찰차와 군대 트럭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경찰과 군인 차들은 그 지역(Hledan) 사람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계속 지나다니기만 했어요. 사람들은 잠을 잘 수 없었지요. 마을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모두 깨어있었습니다.”

## 성도들의 시위 참여와 기도

불안과 혼란 속에, 미얀마 전역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 주, 차카 마을에서 200명의 성도들이 마을 공설운동장에 모여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후에 그들은 마을 주위에 모여 쿠데타에 항의했습니다” 데이지는 또 말했습니다. “양곤에서 칼라이까지, 친 주까지, 젊은이와 노인들, 오순절파와 카톨릭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를 지지하지만, 한편 시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데이지는 말합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로 오해나 불화가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성도들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자고 깰 수 있도록,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기도해주세요

**1.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많은 ‘친’ 주, ‘카친’ 주, ‘샨’ 주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미얀마 군사정권 하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는, 특히 친 주와 카친 주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 인구의 거의 90%가 크리스천인데, 불교도인 미얀마 군대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 오랫동안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습니다.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성도들은 구타를 당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린 형제는 “과거에 군사정부는 항상 불교문화와 전통만을 보호해왔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지금 또다시 교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



다. 아직 그 정도와 형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규제가 예상됩니다.”라고 말합니다. “

**2. 미얀마 국내난민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카렌 주의 정글 속의 4,000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이제 이들은 더 쫓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500명 이상이 바고 지역 키아우끼에 갇혀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음식, 약품, 옷 모두 필요한데, 이들에게 접근하기도 연락하기도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3. 후원금과 구호품 전달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군부의 은행 통제에 따라, 해외로부터 후원금 송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신뢰성 있는 송금 앱, 전자지갑 서비스인 ‘Wave Money’가 인터넷의 차단, 정지 등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현지파트너들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의 후원금 전달 수단이 확보되고 구호품 전달이 중지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오픈도어는 미얀마에 성경과 신앙서적 훈련자료들을 배포하고,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어린이 청소년 관련 신앙훈련들도 진행합니다. 미얀마는 올해 박해국가 순위 18위에 오른 박해지수가 높은 국가입니다. 군부의 집권으로 미얀마에서 교회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지 않기를, 친불교 민족주의 정서가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기를 기도해주세요!





#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계속되는 오픈도어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딤후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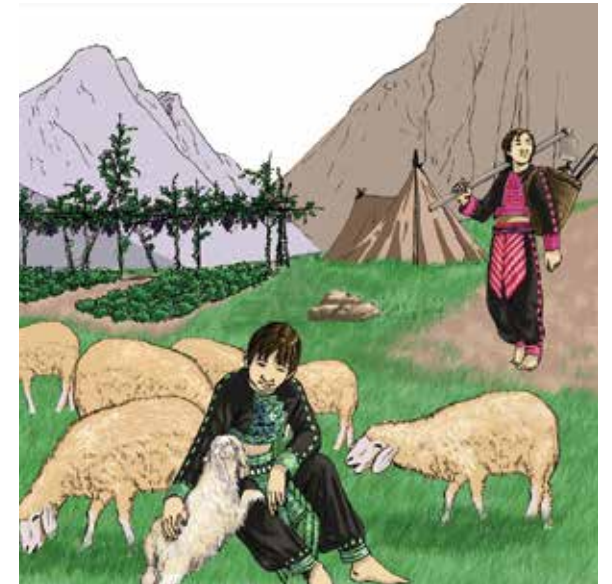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홍수 재난 속,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다

“자연재해 가운데에도 찬양할 곳은 있습니다” 라고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 미칼이 새신자 세례소식을 전했습니다. “5명의 새신자들이 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SSTS(박해대비 세미나)를 마쳤거든요. 이런 간증을 듣는 것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

다!” 미칼은 또한 홍수로 타격을 입은 성도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몬순 폭우로 1월에 홍수가 나서 농사짓는 성도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 코로나 봉쇄 때 경찰들이 집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수확을 할 수 없었고, 이제 다시 심은 씨를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홍수로 작물이 못쓰게 된 것입니다.

## 2,000권의 ‘몽Hmong’족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 발간

베트남/라오스 몽족 어린이들을 위한 SSTS(박해대비) 기반의 주일학교 교재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드디어 2,279권이 인쇄되어 배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오픈도어 파트너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효과적인 제자훈련 교재의 필요성을 호소하여 몇 년 전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몽족은 정령숭배를 하고 있어 모든 물건에 나쁜 영과 좋은 영이 있어 이 영들을 달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는 예수님이 이 정령들 보다 강력한 분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장년들의 박해대비 훈련(SSTS) 교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박해대비의 주제도 담고 있습니다.



## 브루나이/말레이 청소년들에게 성경 전달

성경 20박스가 브루나이에 있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른 9박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성경을 받은 모든 학생들과 교회전체가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만의 성경을 갖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파트너는, “이 성경들은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좋아합니다. 이전 세대들은 인도네시아어로 된 구식 성경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비해 젊은 세대들은 다르거든요.” 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팔 ‘미싱(재봉틀)’ 후원

코로나19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팔의 여성들에게 오픈도어 파트너들이 미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미싱들은 가난한 이들의 가정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미싱을 이용한 재봉일로 가정에 수입이 들어오고 생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싱을 두 달 먼저 받은 인도의 자야는 “이 미싱이 없다면, 저는 밭에서 일하는 하루 일당으로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느라 힘들텐데 이제 생활이 나아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서부 교회지도자들 자전거 후원

교인들을 찾아가거나 전도하러 다닐 자전거를 살 여유가 없는 교회지도자들에게 자전거를 후원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 •슈레쉬-“매번 교통수단이 없이 심방을 다니느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전거를 주셨네요! 이제 어디든지 쉽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후원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날리나-“정말 자전거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을 섬기는데 제 삶을 드렸어요. 주님 사역을 위해 이 자전거를 쓰겠습니다. 자전거를 제공해주신 선교회에도 감사드려요!”



방글라데시 ‘염소’, ‘담요’ 후원, ‘성인 글자교실’ 진행

올해는 예년보다 춥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성도들은 담요나 스웨터를 살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이들 성도들에게 담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오랜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들로 생계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수입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염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한 1월말에 예정대로 성인 글자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주엘라 메디컬 캠페인

오픈도어는 베네주엘라의 다른 단체들과 연합하여 베네주엘라 미란다 주의 한 지역(Los Teques)에서 메디컬 캠페인을 3일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개척교회 소속 성도들로서, 가장 의료혜택이 필요한 사람들로 선정된 345명이 와서 의료상담을 받고 의약품들을 받아갔습니다. \*의약품들은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구입해서 베네주엘라로 수송되었습니다.







## 스리랑카 택시 “툑툑”이를 받은 아빠

프라산타 형제는 스리랑카의 일일 노동자입니다. 스리랑카 부활절 폭란테러에서 아내 ‘기리자’를 잃고 3세부터 16세까지 네 명의 자녀들을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폭란테러가 있기 전, 프라산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기리자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성경을 읽어주며 주일마다 교회로 초청했지만, 프라산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없는 이제, 딸 두카수니가 아빠에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프라산타는, 아내의 소원대로, 그리스도교로 나왔습니다. 오픈도어 여러분의 후원으로 프라산타에게 조그만 삼륜 택시, ‘툑툑이 tuk tuk’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툑툑이’는 프라산타가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 ■ 박해지역 성도의 수입창출 프로젝트 후원 ➡ ‘희망의선물’ 6번 (소식지 뒷면)

- ▶ 마이크로론(대출) - 예)사업장 임대료
- ▶ 수입창출 기계 지원 - 예)미싱
- ▶ 수입창출 가축 지원 - 예)염소
- ▶ 재배를 위한 종자 지원 - 예)옥수수

\*금액은 국가별 지역별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현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 후원요청

##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 나의 희망의 선물 2021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달/훈련	선물 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 포함	6\$ (7,000₩ ~)
	선물 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선물 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 지원 (SED)	선물 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선물 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선물 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순교자 가족 포함	40\$ (50,000₩ ~)
	선물 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선물 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 지원	20\$ (30,000₩ ~)
난민/투옥자/ 파괴된 교회 지원	선물 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시리아 난민 포함	50\$ (60,000₩ ~)
	선물 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투옥자 포함	50\$ (60,000₩ ~)
	선물 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예배장소 지원	100\$ (120,000₩ ~)

※ 기존 정기후원자님의 후원은 2021년 선물번호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다중선택 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02-596-3171/010-7548-3171) 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들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